| 현불 논단 |

남북 불교 교류, 통일로 가는 길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1991년 美서 열린 법회 기점으로
南北 불교계 본격적인 교류 시작
신계사 · 영통사 복원 등 활발 추진
2008년부터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예정
현재 예술 · 체육 분야서 다양한 교류

불교계 통일 종책과 불사 준비해야
학계, 통일과정 갈등 극복 연구 필요
南北불교 교류는 통일 토대의 '지류'

고려시대에 판각된 3종류의 대장경 중에서 교장(敎藏)을 판각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대장경 편찬은 천 년의 지혜를 정리하여 천 년의 미래로 전해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의천이 꿈꾸었던 미래의 1000년 중의 한 세대인 우리들로서는 부끄러움이 크다.

그 이유로서는 1600여 년의 불교역사를 간직한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67여 년 동안 남과 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인도 · 중국을 통해 전개된 불교의 사상과 철학, 우리만의 문화와 예술 등의 혼이 단절되어 서로 융회(融會)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도 1991년 10월에 미국 LA에서 진행된 '남북해외불교지도자 조국통일기원법회'를 시작으로 남북한 불교계는 다양한 법회와 불사들로 북한과 교류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측에서는 조불련 위원장이었던 故 박태화 위원장이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8.15 남북공동행사에, 2003년에는 황병준 부위원장이 봉은사에서 개최된 3.1절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에, 2006년에는 정서정 서기장이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각각 참석하여 남북간 불교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북측에 금강국수공장(1998년, 평불협), 금강산 신계사 복원(2004년, 조계종), 개성 영통사 복원(2005년, 천태종) 불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은 부처님오신날에 '남북공동발원문 채택 및 동시 낭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남과 북의 교계 및 단체들은 금강산과 해외에서 다양한 교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류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전면 중단되었다.

올해는 지난 9년과는 달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일환으로 현재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불교계와 학계 또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천년의 불교를 위하여 남과 북이 민족의 동일성과 일불제자라는 마음으로 통일 종책과 다양한 불사들이 준비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불교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계와 학계 및 단체들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진정성과 신뢰로 남북의 교계 · 학계 · 사찰 · 신도회가 서로 지류(支流)로서 교류하였으면 한다. 이 지류들은 언젠가 본류(本流)라 할 수 있는 통일의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계, 학계 및 단체들의 지속적인 지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계에서는 △불교의 4대 명절에 남북공동법요식 봉행 △남북한의 승가교육 교류 △신계사 운영정상화 노력 △불자들의 교차 성지순례 교류가 필요하다.

교계와 문화 · 예술계에서는 △폐사지 발굴조사 △불교문화재 및 문헌들에 대한 공동학술연구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사업 진행 △불교의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불교학계에서는 김일성대학교 종교학과 및 민족문족문화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 교류, 각 불교단체들에서는 단체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이들의 남북교류는 어떠한 장애에도 인욕과 자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류들의 불사들이 언젠가는 본류가 되어 통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社 說

장애인 신행공동체 구축하자

4월 5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는 불교계에서 시금석이 될 제막식이 이뤄졌다. 바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도인 '촉지도'가 세워진 것이다. 조계사의 이러한 행보는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불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16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251만명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하며 감쳐왔던 '장애'를 드러내는 사회 분위기가 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부처님 십대제자 중에는 천안제일로 불리는 시각장애인인 아나율 존자가 있었으며, 아라한과를 증득한 지적장애인인 주리반특이 있었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었다.

현재 불교계에는 다양한 장애인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케리어, 전자 안내판 등이 그 것이다. 그 이면에 장애인들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신행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조계사에는 원심회라는 장애인 수화 모임이 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법회도 보는 곳이다. 불자장애인 문인 모임인 보리수아래 모임 또한 조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임이 각 사찰에서 생겨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하나씩 장애를 지니고 있다. 이제 불교계는 장애인들이 함께 수행하고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와 공간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등회, 인류유산 등재에 만전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연등회는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했다고 한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등회는 중지됐지만,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호기놀이 등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근현대에 들어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 어울림마당(연등법회) ·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축제다. 지금도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도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연등회 행사와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불교계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 연등회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2020년에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전할 수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한일불교協, 화합이 필요하다

1977년 한일 양국불교계의 불교진흥과 우호친선을 위해 발족한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최근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예산 축소와 불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 악재가 겹쳐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의회 이사인 불교총지종은 3월 29일 법인사무처에 탈퇴 공문을 보냈다. 탈퇴 사유는 이사장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정기총회서 총지종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부회장 승격 요청을 이사장 직권으로 거부했다는 게 요지다. 실제 홍파 스님은 2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서 "총지종은 협의회에 공헌한 바가 없고, 참여도도 좋지 않다. 총지종의 부회장 승격 요청은 이사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총지종은 이 같은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듯 회의에 불참했다.

총지종은 前통리원장 법등 정사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마쳤고, 그간 협의회 주최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서도 부회장으로 승격한 총지종이기에 반발은 거셌다. 공문에서도 "홍파 스님의 왜곡된 사고와 독단으로 종단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며, 총지종은 앞으로 회원종단으로서 더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해 탈퇴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총지종 측이 협의회 탈퇴를 '가장 약한 수준의 대응'이라고 표현할 만큼 홍파 스님과 총지종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기자는 홍파 스님에게 공헌에 대한 기준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진 못했다. 다만 홍파 스님은 "내 발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래도 탈퇴까지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 화합을 위해 총지종과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총지종이) 편치 않았다니 생각해볼 일이지만 기자와 긴 얘길 하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총지종의 탈퇴는 협의회 회비수입 감소로 직결된다. 총지종이 부담하는 회비는 연간 300만원. 게다가 최근 회장단 회비 · 후원금을 조정해 협의회 회비수입은 기존 대비 약 1000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협의회 연간 회비수입이 수천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큰 타격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불교계의 미온적인 교류 태도도 지난해 도마에 올라 협의회 차원서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항의로 일본불교계의 태도가 바뀌진 않았다. 결국 회원 탈퇴와 해외교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협의회 대내외적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됐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세간의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과거 알라비칼라에 머물고 있을 때 500여 명의 장자를 이끄는 수장자와의 대화에서 사섭법(四攝法)을 대중지도자의 필수덕목으로 꼽았다. 부처님은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섭법으로 대중을 이끈다면 어떤 대중도 이끌지 못할 대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만큼 보시(布施) · 애어(愛語) · 이행(利行) · 동사(同事) 4가지 가치는 지도자로서 갖춰야할 중요한 실천덕목인 셈이다. 따라서 대중이 모인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 단체의 지도부에 있다. 부디 한일 양국불교계 선린을 위해 40년 넘도록 매진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사소한 문제들로 좌초되지 않도록 지도부의 지혜를 모아내길 바란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